

소유진 “백종원, 부부싸움 후 밤새 사골 끓여”



‘자연스럽게’에서 고독한 사골남에 등극한 허재가 요리 전문가 소유진을 섭외해 이웃끼리의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눈다. 20일 방송될 MBN 소화행 힐링 예능 프로그램 ‘자연스럽게’에서는 친신만고 끝에 인생 첫 번째 사골 곰탕을 완성한 허재가 ‘완벽한 활용’을 위해 소유진을 섭외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자연스럽게’ 측에 따르면 이날 허재는 소유진에게 전화를 걸어 “나 좀 도와줘요. 사골 딱만두국을 하려고 하는데...

혼자서는 못하겠어요”라고 간곡히 부탁했고, 소유진은 “좀 봐드릴까요?”라며 흔쾌히 이를 허락했다. 허재와 함께 요리를 하던 소유진은 “저희 남편은 장기 출장을 가기 전이나 저하고 다툰 때 꼭 사골을 끓여요”라며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미안한 마음을 담아 밤새 정성으로 우린 곰탕을 아침에 내놓는 것”이라고 말해 감탄을 자아냈다. 그러면서 소유진은 “감독님은 아내 분과 다투시면 어떻게 하세요?”라

MBN 소화행 힐링 예능프로그램 ‘자연스럽게’ 시골 마을 빈집 입주한 셀럽들 휘게 라이프 선보여

고 허재에게 물었다. 이에 허재는 “난 그냥 숙소 가”라고 말해 소유진의 폭소를 자아냈다. 소유진은 “도망? 회피?”라고 물었지만, 허재는 “아니, 도망은 아니고... 그렇게 숙소 가서 2~3일 지나면 자연스럽게 풀려요”라고 답했다. 소유진은 다시 “그럼 들어가갈 때 무슨 선물을 들고 들어가세요?”라고 질문을 던졌고 허재는 “신혼 초 때는 선물도 들고 들어가 봤지. 남들 다 하는 100송이 장미 같은...”이라고 대답해 의외의 ‘로맨티스트’다운 면모를 드러냈다. 허재의 말에 소유진이 깜짝 놀라자, 허재는 “그

냥 딱 한 번 해 봤어”라며 쑥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허재와 소유진은 이야기를 나누며 사골국을 활용한 딱만두국과 우족수육을 만들어냈고 허재는 아픈 김중민을 위해 진한 국물의 ‘사골죽’까지 만들며 스위트 가이의 진수를 보여줬다. 한편 고독한 사골남에서 창조적인 요리 끝나무로 거듭난 허재의 모습은 20일 오후 11시 공개된다. ‘자연스럽게’는 아름다운 시골 마을의 빈 집을 세컨드 하우스로 삼고 입주한 셀럽들이 평화를 지만 놀라운 휘게 라이프를 선보이는 소화행 힐링 예능이다.



엄청난 과거를 숨긴 채 못 가는 웹툰 작가 생활을 하는 남자가 있다. 언제 때마다 ‘악플’ 폭격을 받는 그의 인생은 고달프기만 하다. 마감에 쫓기며 아내 몰래 담배만 피워대는 한심해 보이지만 하는 이 ‘마감노동자’의 작은 실수는 평온했던 그의 삶을 한순간에 전쟁터로 바꿔버린다.

14일 언론배급사사회를 통해 공개된 ‘히트맨’ (감독 최원섭)은 권상우 특유의 생활감 묻어나는 코미디와 남성들의 판타지를 자극하는 화려한 액션이 어우러진 코미디 액션 영화였다. 이미 한국의 액션 영화계에는 ‘MCU’ (마동석 시네마틱 유니버스)라고 불리는 마동석의 자리가 공고한 상황. 하지만 최근 권상우의 행보를 보면 마동석이 꽂 잡고 있는 액션 영화계 한 축을 차지하고자 하는 야심이 읽힌다. 액션 영화였던 ‘신의 한수-귀수편’에 이어 액션 코미디 ‘히트맨’을 연이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히트맨’은 과거 흥풍 액션 영화의 향수를 떠올리게 하는, 액션과 코미디가 버무러진 오락성 짙은 영화다.

영화는 전설적인 ‘히트맨’ (암살자)이었던 준(권상우 분)의 과거로 시작한다. 사고로 부모를 잃은 어린 준은 만화가가 되기를 꿈꾸지만 그의 남다른 재능을 눈여겨본 디규(정준호 분)에게 발탁돼 국가를 위한 암살요원 집단, 국정원 방패인 프로젝트의 일원이 된다.

국정원의 에이스 요원으로 성장했지만 꿈을 도저히 놓을 수 없었던 준은 결국 위험한 임무 수행 중 탈출을 감행하고, 새 신분을 얻는다. 15년 후, 인기 없는 웹툰 작가 수혁으로 살고 있는 준은 중학생 딸을 둔 가장이다. 미술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아내 대신 실력을 살려 웹툰을 그리는 그는 래퍼가 되겠다는 딸을 위해 키보드 하나 사주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다.

꿈에 그리던 웹툰 작가가 됐지만 준의 일은 잘 풀리지 않았다. 새로운 회사를 옮길 때마다 욕을 먹고 편집자의 악평에 자괴감을 느낀다. 결국 그는 비참한 기분에 술을 마시다 술김에 암살요원으로 일했던 과거를 웹툰으로 그린다. 눈을 떠보니 이미 웹툰은 업로드가 돼 있다. 아내 미나(황우슬혜 분)가 남편 대신 편집자에게 웹툰을 보내버린 것. 자신이 읽는 것이 국가 기밀임을 알지 못하는 편집자와 독자들은 박진감 넘치는 암살요원 준의 스토리에 열광하고 웹툰은 대박이 난다. 그리고 현 국정원 대테러 정보국 국장 디규는 우연히 암살요원 준을 보게 되고 조사에 착수한다.

비범한 과거를 숨긴 채 찌질한 현실을 살고 있는 중년 남자의 모습은 조금 과장이 있긴 하지만 공감을 자아낸다. 아내의 바가지에 기가 죽고 사춘기 딸과 점점 더 멀어지는 가장 준(수혁)의 모습이 중년 남성들을 대변하는 듯하다.

액션 연기를 위해 기울인 권상우의 노력이 여실히 드러난다. 배우의 노력 덕에 액션 시퀀스들은 돋보이는 편이고 특유의 ‘짤내’ 나는 생활 코미디도 재밌다. 다만 전반적으로는 코미디의 타율이 그리 높지 않아 뒤로 갈수록 긴장감이 떨어지는 한계를 보여준다. 러닝 타임 110분. 오는 22일 개봉.

윤계상 “착하고 따뜻한 드라마...달콤한 위로 됐길” 종영소감

“‘초콜릿’과 이강 사랑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감사”

배우 윤계상이 JTBC 금토드라마 ‘초콜릿’ (연출 이형민/극본 이경희)의 종영 소감을 전했다. 19일 윤계상은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초콜릿’과 이강을 사랑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강으로 지내는 동안 정말 즐겁고 행복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초콜릿’은 참 착하고 따뜻한 드라마였다. 많은 분들께 초콜릿처럼 달콤한 위로가 되는 드라마였길 바란다”라며 작

품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 또한 “6개월 남짓 촬영을 했는데 그만큼 아쉬움도 많이 남는다. 지금까지 16부 동안 열심히 촬영해오신 스텝분들과 배우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다”라며 “초콜릿”을 함께 만든 동료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윤계상은 “다음에도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올 테니 저 윤계상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 인사를 덧붙였다. 윤계상은 “초콜릿”에서 메스처럼 차가워 보이지만 따뜻한 내면을 지닌 뇌 신경

외과 의사 이강 역으로 분했다. 윤계상은 하지원과 오랫동안 얽힌 운명을 하나씩 풀어가며 점차 사랑에 스며드는 ‘힐링 로맨스’는 물론 호스피스에서 만난 환자와 사람 냄새 가득한 감동을 윤계상만의 ‘은기’로 풀어나가며 후편 드라마를 그렸다. 또한 극 초반 냉철한 이미지의 이강이 사람의 온기에 녹아가는 모습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윤계상표 어른 동화’를 완성했다. 이강이 수많은 번곡점을 맞이하며 문치영(하지원 분)과의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은 물론 의사로서 사명감을 높여가는 과정에 설득력을 가미해 호평을 자아냈다. 특히 하지원을 향해 직진 로맨스를 펼칠



때는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떨리게 하는 ‘멜로 장인’의 면모로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한편 윤계상은 영화 ‘유체이탈자(가제)’ 크랭크업을 마치고 올해 개봉을 앞두고 있다. 뉴스

여자친구, 데뷔 5주년 단독 팬미팅 성황...2월 컴백 기대감



그들 여자친구가 세 번째 팬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여자친구는 지난 18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단독 팬미팅 ‘Dear, Buddy - Make a Wish’를 개최하고 팬들과 만났다. 이번 ‘Make a Wish’ 팬미팅은 지난해

2월 ‘Dear, Buddy - Cross the Sunset’ 이후 약 1년여 만에 열린 세 번째 팬미팅으로, 여자친구가 팬들의 소원을 이뤄주는 ‘일일 지니’로 변신해 팬들과 한층 가까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난 16일 데뷔 5주년을 맞은 여자친구는 팬미팅 첫 곡으로 데뷔곡 ‘유리구

‘일일 지니’ 변신 소통 시간
여섯 멤버 한 코너씩 진행
내달 3일 컴백 앞둔 신호탄

슬 (Glass Bead)’를 선곡한데 이어 팬들이 투표로 뽑은 가장 보고 싶던 무대 ‘White (하얀마음)’를 선보이며 시작부터 열기를 더했다. 또한 여섯 멤버들이 한 코너씩 진행을 맡아 총 6개의 다채로운 코너들로 160분을 꽉 채우며 재치 넘치는 입담을 자랑했다. 최근의 TMI를 공개하는 ‘GF TMI 단신’을 비롯해 셀프 칭찬의 주인공이 누구일지 유추하는 ‘셀프 칭찬! 나를 찾아봐!’, 버디(Buddy, 팬클럽명)가 여자친구에게 바라는 소원들을 확인해보는 ‘GF 소원 구슬’ 등 팬들과 함께 호흡했다. 이후 ‘시간을 달려서 (Rough)’를 시작

으로 팬들에게 처음 선보이는 ‘겨울, 끝 (It's You)’, 따뜻한 힐링송 ‘You are not alone’으로 이어지는 감성 가득한 무대를 꾸렸다.

이외에도 멤버들의 승부욕을 느낄 수 있었던 ‘랜턴 가요 퀴즈’, 멤버들의 애장품을 추첨해 팬들에게 선물하는 ‘애장품 럭키 박스’를 진행하며 친근한 매력은 물론 명불허전의 퍼포먼스를 자랑해 팬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끝으로 여자친구는 ‘밤 (Time for the moon night)’, ‘Only 1’, ‘Paradise’ 등의 앙코르 무대를 통해 데뷔 5주년 기념 팬미팅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번 팬미팅은 여자친구가 내달 3일 컴백을 앞두고 팬들과 만나는 자리로, 2020년 본격적인 활동의 성공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여자친구는 “이번 팬미팅을 통해 항상 변함없이 저희를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버디들의 소원도 듣고, 힐링을 선물해주고 싶었다. 이제 곧 컴백이 다가오는 데 많이 설렌다. 새 미니앨범도 많이 기대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여자친구는 오는 2월3일 미니앨범 ‘[M]: LABYRINTH’로 컴백한다. 뉴스



‘기생충’ 美영화편집자협회 편집상 수상

외국어영화 이번이 최초
양진모 “훌륭한 영화 위해 최선을”

영화 ‘기생충’ (감독 봉준호) 편집감독이 미국영화편집자협회(American Cinema Editors, ACE)가 개최하는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17일 (현지시간) 테드라인, 버라이어티 등 외신에 따르면 비버리 힐튼 호텔에서 열린 2020 ACE 에디 어워드(ACE Eddie Awards)에서 ‘기생충’의 양진모 편집감독은 장편영화 드라마 부문 편집상을 수상했다. 외국어영화가 이 시상식에서 최고의 편집상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진모 편집감독은 이 자리에서 “꿈처럼 느껴진다”며 “영화에 출연한 모든 배우들에게 감사드린다. 함께 작업한 편집진들

에게도 감사하다. 위대한 감독들과 함께 훌륭한 영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기생충’은 오는 2월 열리는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국제극영화상(외국어영화상), 각본상, 편집상, 미술상까지 총 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됐다. 한국 영화는 처음으로 아카데미 시상식 본상 후보에 올랐다. 뉴스